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7호 [루게 제24760호] 주제103(2014)년 12월 13일 (토요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흡 7련대 칭호를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189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흡 7련대 칭호를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189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최룡해동지, 황병서동지, 리영길동지, 오일정동지, 한광상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맞이하는 군부대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인 해군상장 김명식동지, 대련합부대 정치위원인 해군소장 박태수동지를 비롯한 군부대의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표식비와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귀중한 사적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아 주시면서 이 부대를 창설하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작전수역 해저상태를 손금보듯 환히 꿰뚫고 제기될수 있는 정황들을 미리 예견하여 합리적인 전투방안들을 수립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잠수함들의 실동훈련을 지도하시면서 잠수함부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해군싸움준비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고리가 무엇이고 주체적인 해상 및 수중전법을 어떻게 활용해나가겠는가를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당창건 70돐이 되는 2015년을 해군무력강화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는 해로 되게 하자고 하시면서 군부대장병들이 당중앙의 의도를 명심하고 새년도 전투정치훈련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도서실, 군인회관 등을 돌아보시면서 정치사상교양사업실태를 알아보시였다.

하여 군부대가 대잠수함기지로 전변되었으며 무적필승의 전투대로로 장성강화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 해병들이 부대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군업적을 오늘의 훈련길에서 고수하고 다지며 자랑찬 훈련성파로 빛내여갈 일념을 안고 빨찌산식훈련열풍을 백두의 칼바람마냥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중종합훈련실에서 어리들려훈련

을 비롯한 실내훈련을 보시면서 새년도 전투정치훈련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준엄한 바다싸움에서의 승리는 훈련을 통하여 마련된다는 자각을 안고 여러가지 전문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하여 해병들을 만능해병, 바다의 결사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실내훈련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전투환경과 똑같은 조건에서 훈

련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앞선 훈련방법을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훈련기재들을 싸움의 전지에서 창안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함장들이 복잡한 수로, 불리한 일기조건, 각이한 정황속에서도 수중작전 임무를 능숙히 지휘할수 있게 하자면 실전과 같은 정황속에서 해상전투조직과 지휘능력, 함운용술을 터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당창건 70돐이 되는 2015년을 해군무력강화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는 해로 되게 하자고 하시면서 군부대장병들이 당중앙의 의도를 명심하고 새년도 전투정치훈련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도서실, 군인회관 등을 돌아보시면서 정치사상교양사업실태를 알아보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종흡 7련대칭호를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 189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1 번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도서실들에 필독도서들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는것과 함께 군인들속에서 독서열풍을 일으켜 그들이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빨찌산식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는데 전군을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하기 위한 지름길이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회관을 정말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당이 제시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의 5대교양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시

하시였다. 해병들의 가슴마다에 신념으로 가는 조국수호의 항로에서는 직선돌격침로만 있을뿐 변침이란 있을수 없다는 불굴의 공격정신을 심어주어 그들이 사랑하는 조국땅을 멀리 떠나 망망대해 작전수역에 가셔도 당과 혁명을 목숨바쳐 사수하는 바다의 결사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관하 2편대 잠수함 720호 해병들의 병실, 교양실, 식당들을 돌아보시면서 해병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병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침실이 혼 혼

하니 마음이 놓인다고 만족해하시였고 교양실을 돌아보시면서는 해병들이 당의 사상을 제때에 접수하고 그 진수를 파악할수 있게 교양실운영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해병들이 매월 급식하게 될 콩을 직접 볼수 있게 콩창고를 특색있게 꾸려 놓은것을 보시고 해병들이 좋아하겠구만, 콩창고에 콩이 가득찬데 탄약이 꼭 차있는 병기창고같소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취사장의 조리대에 차려놓은 갖가지 음식감들을 보시고 당에서 아끼는 잠수함해병들의 식사보장을 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시며 취사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휘관들은 늘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잊지 말고 잠수함해병들에게 훌륭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장병들이 <우리는 당의 출항명령을 기다린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부대지휘관리에서 새로운 개선을 가져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부르며 격정의 눈물을 흘리는 해병들에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해군 제 189군부대의 전체 장병들은 자기들의 부대에 찾아오시여 싸움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보살펴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결전의 그날이 오면 한몸 그대로 어뢰가 되어 원수들을 검푸른 바다속에 모조리 수장해버릴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종흠 7련대칭호를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 189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백두산의 혁명정신은 혁명정신이 된 척후사령관을 이룩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혁명은 백두산에 그 뿌리를 두고있으며 조선의 정신은 바로 백두산의 정신입니다.》

백두산, 그 이름 조용히 불러보면 우리 눈앞에 세차게 울부짖는 백두의 눈보라와 장설을 띤 천리수해의 자태가 안겨온다.

우-우- 하늘땅을 휩쓸며 몰아치는 눈보라소리 귀청을 때리고 태고연한 천고의 밀림이 폭풍처럼 설레인다.

정-어메신 바락달나무가 얼어터졌다. 한지얇고 분간하기 어렵게 몰아치는 눈보라가 저쪽에 있던 눈산을 순식간에 덮어버려 이쪽에 옮겨놓는다.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듯 앞을 가릴수 없게 사나운 눈발들이 무성히 휘몰아치는 백두의 눈보라.

허나 우리는 이런 눈보라를 백두의 칼바람이라 부르며 사랑한다.

자연이 가져다준 장애함배 문만이라.

백두의 칼바람, 이것은 온갖 추하고 악한것들, 잡다하고 연약한것들을 말끔히 휩쓸어버리는 바람이다.

이 땅의 정기를 청신하게 다스려주고 혁명가의 신념을

백두의 칼바람

버려주고 버려버리는 바람이기에 내 조국땅에 태를 묻고 사는 사람이란 누구나 백두산으로, 백두산으로 마음 달리는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그 어떤 시련도 용감무쌍히 뚫고나가게 해주며 원수에 판용과 타협을 모르고 예리하게 장쾌한 돌풍을 퍼붓는 백두의 칼바람처럼 드레 바람은 없다.

일월수목 없다. 지난해 11월 백두산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삼지연군을 찾았을때는 원수님의 모습.

우리 원수님께서 걸으신 그날의 길이 과연 험한 길이었던가. 벼슬값이 스며드는 모진 추위가 대지를 얼고 흰눈이 강산같이 내려앉은 백설천이 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대 기념비를 돌아보시며

백두의 칼바람

한신 말씀이 오늘도 쟁쟁히 울려온다.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지도밑에 세워진 삼지연대기념비는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이며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이다. 삼지연대기념비에 서니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하겠다는 결심과 의지가 더욱 굳어진다. ...

바로 그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흰눈덮인 백두의 산발을 바라보시며 굳히신것은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한평생 휘날려오신 혁명의 붉은기높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실 의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1월 찬바람 맞으시며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셨을 때에도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문헌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혁명적 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할수 있다고 그토록 절절히 강조하시였다.

진정 백두의 칼바람은 죽어도 혁명신념을 버리지 말라는 혁명

백두의 칼바람

선열들의 당부이고 사자판에서도 솟구쳐오를수 있게 하는 거대한 혁명의 폭풍이며 백두산의 명맥을 이어준 활력소이기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진군길에서 백두의 칼바람을 온 나라에 더욱 세차게 일으키신다.

높고 험준한 절벽과 오성산을 넘고 사령부작전대에서 열적의 화살표를 그으실 때에도 그의 귀엔 빨개진 총소리가 끊없이 울렸다. 최첨단을 자랑하는 현대적인 공장의 구배를 걸으시여도, 인민의 행복의 웃음꽃 피어날 건축물을 돌아보시여도 그의 심중엔 백두산의 눈보라가 작지않았다.

백두의 칼바람 불어치는 곳에서 원수들의 온갖 악랄하고 비열한 책동을 걸음마다 산산이 부서져나갔다.

그렇다.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신념을 더욱 굳게 버려주고 모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따스한 바람이며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에게는 돌풍이 되어 휩쓸어 내리는 예리한 바람이다.

백두의 칼바람

백두의 칼바람을 잊으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갈수 없기에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백두산을 찾았다.

백두의 풀무오른 군복에 번쩍이는 백두산관총을 찬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이 항일유격대원들처럼 강행군도 하고 야외에서 숙식도 하면서 눈보라를 뚫고 행군했다.

그뒤를 이어 전국의 당책임 일군들, 출판보도부문의 기자, 언론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인민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변이 백두산을 찾아 백두의 칼바람으로 마음을 씻고 백두의 눈과 정신으로 거머쥐어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갈 신념과 의지를 굳혀왔다.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니 끝까지 혁명을 해야겠다는 혁명열이 더욱 끓어번진다.》, 《오늘의 행군길을 최후승리의 진군길로 이어가겠다.》 ...

자연의 눈보라는 약해질수 없고 멎을수도 있지만 혁명의 눈보라, 백두의 칼바람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세차게 불어쳐야 한다. 백두의 칼바람이 영원히 더 세차게 불어올 때 주체혁명위업의 승리가 확정되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기가는 만방에 떨쳐질수 있다.

본사기자 백영 III

오늘도 래일도 붉은기와 함께

세월은 멀리 흘렀어도 우리 혁명의 진주에는 오늘도 변함없이 붉은기가 나뭇가지에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백두산을 찾았다.

우리 혁명의 1세대가 추켜 들었던 붉은기 2세, 3세, 4세대가 넘겨받으며 한시도 내리움이 없이 휘날려가고있는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의 불멸성이 있고 최후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견결히 고수하여 오신 혁명의 붉은기를 앞으로 영원히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아가는것은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인 우리모두의 숭고한 의무이며 의무입니다. 붉은기를 끝까지 지키면 승리하고 지키지 못하면 망합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행성이 어려웠을 붉은기는 우리 혁명가들의 신념이고 광성이라고, 혁명가의 일생은 붉은기를 견결히 지키고 휘날려가는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런 숭고한 의지에 의하여 아버지수령님의 품에서 자란

오늘도 래일도 붉은기와 함께

수천수만의 전사들의 대오앞에 혁명의 붉은기가 휘날리게 되었다.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하신 행성이 어려웠고 력사의 험산준령을 헤쳐넘으며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력사가 새겨져있으며 절세의 위인들을 받들어 당과 조국을 빛내어갈 친정의 신념과 의지가 비껴있는것이 바로 우리의 붉은기이다.

오늘도 펄펄 나뭇가지에 붉은기를 바라볼 때면 아버지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붉은기를 휘날려오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한평생이 안겨온다.

이 세상에 우리 장군님처럼 붉은기를 그토록 사랑하신분이 또 어디 있으랴. 장수수령님께서는 수령님의 행성이 어려웠을 붉은기는 우리 혁명가들의 신념이고 광성이라고, 혁명가의 일생은 붉은기를 견결히 지키고 휘날려가는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런 숭고한 의지에 의하여 아버지수령님의 품에서 자란

오늘도 래일도 붉은기와 함께

가사는 명가사입니다. 우리는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를 높이 부르며 땅을 따라 혁명의 길을 곳곳이 걸어 나가야 합니다. ...

《높이 들자 붉은기》, 이 노래에는 혁명앞에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드리고 오직 승리만을 떨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세계가 담겨져있다. 백두에서부터 휘날려온 붉은기는 장엄한 피터림소리 가 오늘도 우리 시대를 진감시키고있다.

그것은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거대한 승결이고 신심에 넘친 박동소리이다.

우리의 붉은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행성이 어려웠고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에 거머잡아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과 의지가 어려웠다.

대를 이어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 들고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진두에 서시기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은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다.

전 광 남

밀명의 우등불자리

신념의 불길로 안겨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의 밀림에서 라오인 혁명정신은 이 땅에서 대를 이어가며 빛을 뿌릴 가장 고귀한 재부이며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담보하는 불멸의 기지입니다.》

하얗은 추억을 불러주는 우등불자리이다.

수심성상 눈보라치는 밀림속에서 긴긴밤을 지새우시는 아버지수령님께 타고르는 우등불이 안겨드린것이 과연 따뜻한 온기였던가.

어둠을 밀어내며 속영지를 밝혀 비치는 우등불을 바라보시며 삼천리강도에 라반질 조국해방의 불길을 그려보시고 백발불굴의 혁명신념과 혁명정신을 더욱 굳게 가다듬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우등불자리

백두산호랑이로 명성떨친 우리 수령님의 뜨거운 심장에서 타고른 신념의 불길은 적들에게는 죽음을 주는 복수의 불길로, 항일투사들과 우리 인민들에게는 필승의 불길로 되었다.

백두밀림속에 세차게 타올랐던 우등불이 새겨주는 진리의 고귀함을 우리는 다 헤아릴수 없다.

그 어떤 안전한 환경이 아니라 세차게 휘몰아치는 칼바람, 눈보라를 다 맞으며 모진 고난과 시련의 언덕을 넘고 헤쳐야 하는 백두의 밀림속에서 억척만만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는 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신념의 강자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었다.

항일투사들은 단순히 추위를 막기 위하여 우등불을 피우지 않았다. 활활 타오르는 우등불을 보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신념의 구

우등불자리

호를 심장마다에 새기였다.

그들이 간직한 혁명적 신념은 오직 하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만 계시던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절대불변의 확신이었다.

그렇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셨고 혁명정신들이 제 체화한 신념은 그 어떤 난관도 맞받아 뚫고나가는 돌격정신, 억척만만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백발불굴의 투쟁정신, 자기 손으로 나라를 찾고 사회주의라원을 세우겠다는 자주의 정신을 날게 하였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의 그 어디에서나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신념을 더욱욱 세게 버려주며 혁명의 우등불이 세차게 타고르고 있다.

오늘도 우리모두의 마음속

우등불자리

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 활활 타오르는 백두밀림의 우등불은 새겨준다.

혁명은 새겨준다. 신념을 버리면 혁명을 할수 없다.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할수 있다.

바로 위대한 진리를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거머쥐어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갈 신념과 의지를 굳혀왔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 휘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장엄한 진군길에서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을 받아안은 천만군민의 빛은 우등불의 불길마냥 활활 타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혁명을 대를 이어 백두산현령으로 빛내이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역세게 나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신념은 확고부동하다.

본사기자 림정 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신념은 혁명투쟁 과정에 어떤 어려운 난관과 시련에 부딪쳐도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그것을 용감하게 뚫고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적원천입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을 이어가면 나는 소백수목 어귀에 성지의 문주인양 거연히 서있는 강대 나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강대나무!

푸른 잎은 없었다. 세월의 풍상에 푸른 잎새는 물론 초리와 아직까지 날려버리고 밀동에는 이끼가 덮였지만 항일의 혁명력사와 투사들의 혁명신념을 새 세대에 전해주려고 말라버린 송라를 흰 수염처럼 날리며 강건히 버티어 서있는 나무,

강대나무

어린 나무들도 많지만 강대나무들은 뿌리내린 백두대지를 못 잊고 고마운 자양을 준 백두의 물과 공기를 잊지 못하여 죽어서도 백두의 하늘을 엄격같이 떠이고있는것은 아닌지.

강대는 비록 나무이지만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고

단상

강대나무

웨치는 항일투사들의 모습으로 나에게 안겨왔다.

붉은기앞에서 다진 맹세를 지켜 혈전의 천만리를 굴뚝없이 걸어간 투사들, 원수의 총구앞에서도 단두대우에서도 혁명승리의 그날을 확신하며 밝은 미소를 지은 선열들의 혁명적신념의 세계는 얼마나 고결한것인가.

비록 피흘리며 쓰러졌으나 투사들은 오늘도 혁명대오의 전열에서 백발불굴의 혁명신

강대나무

념으로 우리의 투쟁과 전진을 받쳐주었다.

혁명적신념, 바로 그것으로 하여 혁명가의 삶이 그토록 빛나는것이다.

백두의 님을 소중히 안고있는 강대나무,

그 나무앞에서 나는 투사들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었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나의 귀엔 항일혁명투사들이 백두의 눈보라를 헤치며 부르던 혁명가요의 구절구절들이 쟁쟁히 메아리쳐왔다.

설한공이 휘쓰는 험한 산중에 걸심 풀고 싸워가는 우리 혁명군

천신만고 모두다 달계 여기며 피와 땀을 흘린자가 그 얼마나

... 강 원 남

